분단 상흔에 묻힌 '지장성지'

해방 50년 새해 아침

민통선 폐사지 심원사를 가다

단기 4278년 을유년, 그해 한반도는 삼팔선이라는 가시덤불을 매고서 광복을 맞았다. 그후 50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는 세월속에 올해년 아침을 맞는다. 지난 반백년동안 이땅에는 동족상잔이란 다툼과 흥망이 있었으니 그동안은 짧지만 굵직한 역사였다. 그러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바쁘게 고동쳤던 이 기간동안 잊은듯 외면당한 땅이 있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남북으로 각각 4km지점 155마일을 절책선으로 두르고 비어있는 땅. 우리의 땅이면서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한민족에게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애절하기만 했다. 이러한 마음을 좇아 민통선 부처님 땅을 찾아나섰다.

경기도 전곡 한탄강 유원지를 지나 연천군 대광리를 가다보면 20km지점에 보개산(寶蓋山)이 나온다. 살아있는 지장보살이 출현했다는 심원사(深源寺)가 있었던 본산이다. 보개산도 최전방 민통선지역으로 입구에 어김없이 초소와 군부대가 자리해 있다.

이 지역은 해방되면서는 북한땅이었다가 6.25후 휴전선이 올라가면서 남한땅이 된 곳이다. 본래 이곳의 행정구역은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하내산리였다. 1961년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보개산 심원사는 유점사의 말사였다. 일제때 한용운스님이 작성했다는 유점사본말사지에는 심원사의 역사가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사지에 의하면 심원사는 647년(진덕여왕 1) 영원(靈源)조사가 보개산에 영흥사, 법화사, 도리사, 흥림사 등 4대사찰을 창건, 고려때 모두 폐사되었으나 흥림사만 맥을 이어 오늘의 심원사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조에는 인근에 여러 암자를 거느린 대가람으로 중흥, 불법을 펼쳤다. 1천여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심원사는 조선 태조와 임진왜란때 화재로 소실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임란 당시에는 승병 3백여명이 보개산에서 산화했다고 한다. 이때 탱화 32위 불상 1천6백9위 건물 2백50칸이 소실되었다고 하니 심원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심원사는 중창을 거듭하며 1천3백여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6.25 전란때 격전지가 되어 또다시 불에 타 폐사가 되어버렸다. 이후 보개산은 군사통제구역으로 되었고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50여년을 폐사지로 남아버렸다.

유점사 말사 6.25때 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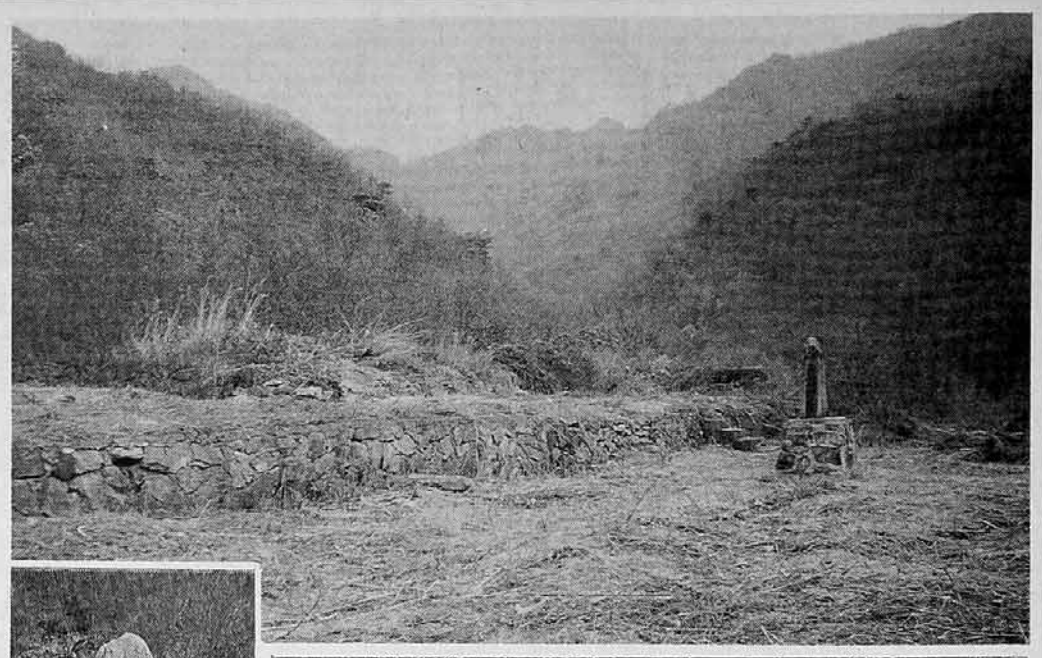
심원사 참배는 군부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종인군법사(중령·광복통일사)의 주선으로 취재일정이 잡혔다. 보개산입구에 도착한 것이 오후 1시경. 군부대에서 나온 안내병을 따라 찾은 심원사지는 차가운 겨울날씨처럼 황량했다.

부대내 연병장을 가로지르면 곧바로 심원사 부도군이 나온다. 일제때 심원사 스님들이 보개산 인근에 흩어져 있던 부도와 비석을 옮겨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제월당대사비를 비롯 풍담당, 청로당, 청심당 등 12기의 부도가 자리해 있다. 비석과 부도의 곳곳이 총탄으로 파여져 6.25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짐작케 한다.

심원사지는 부도군에서 계곡을 따라 5백여m 지점에 있다. 6.25전만해도 수십채의 전각이 자리해 있었으나 지금은 자연석에 새겨진 '심원사지'라는 명패만이 이곳이 심원사터였음을 말해준다. 흩어져 있는 주춧돌과 축대위를 덮고 있는 덩굴이 부처님 땅을 보호하고 있는 듯하여 죄스러웠다.

일제때만해도 심원사에는 화산경원(華山經院)이란 강원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경학 연구뿐 아니라 능력있는 스님들을 외국으로 유학시키는 등 교육에 주력했었다. 현대의 고승들 가운데 심원사강원 출신이 많다고 한다. 근세의 대강백 운허스님이 화산경원의 마지막 강사였다 하니 심원사는 우리에게 가까운 시절의 가람이었다.

◇철원에 새로 세운 심원사내의 지장보살상. 왼쪽 어깨부근에 1천년전 사냥꾼이 쏘았다는 화살 흔적이 남아있다.



◇민통선의 최고 최대 절터, 심원사지(위). 군부대가 자리한 사지는 50여년간 향훈이 끊어졌다. 6.25이전 폐사되기 전의 심원사 전경(아래 오른쪽)과 심원사지임을 밝혀주는 표석(아래 왼쪽)

부도마다 천년가람 흔적 … 환희봉엔 금돼지 전설이

마지막 강사 운허스님

안내병의 발길이 보개산으로 향했다. 심원사에는 꼭 참배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지장도량의 발원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발 870m의 고지를 군인들이 점령하듯 단숨에 올랐건만 한시간 반이나 걸리는 험한 산행이었다. 50여년간 군인이외에는 사람의 발길을 거부했던 길이기에 험난하기가 가시밭길이었다. 군데군데 타다남은 고목이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남아있었다.

보개산은 역시 명찰이 있어야 했던 명산이다. 8부능선쯤에 자리한 보개산 환희봉의 석대암에서 잊혀졌던 민통선내의 대지를 내려다 보았다. 터질만큼 탁트인 전망, 한국의 선으로 대표되는 산등성이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던 영산회상을 연상케 한다.

여기가 한국 최고의 지장도량처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선조들이 지장보살을 친견하고자 했던 성지다.

석대암의 좌측편에 큼직한 바위가 있다. 석대암 우물터다. 안내병의 소개에 따르면 이곳이 지장보살이 출현한 곳이란다.

유점사본말사지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신라 성덕왕 19년(720)의 일이다. 보개산 기슭에 이순석(李淳碩)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어느날 동생과 함께 사냥길에서 큰 금돼지를 발견하고 활을 쏘아 맞추었다.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금돼지를 쫓아 환희봉 근처의 샘물까지 왔다. 두 형제는 샘물에서 왼쪽 어깨에 화살이 꽂힌 지장보살 석상을 발견했다. 피를 흘리고 있는 불상앞에서 두 형제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참회하고 출가했다. 그뒤 3백명의 사냥꾼 무리를 제도하고 이 지장보살상을 모셔 석대암을 지었다."

이후 석대암의 지장보살상은 수많은 이적과 영험으로 '살아있는 지장보살'로 받들어졌고 참배객이 줄을 이었다. 석대암도 6.25때 폐사되었다. 이때 지장보살 석불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전쟁이 끝나자 지장보살상은 2백리나 떨어진 강원도 철원땅에 다시 그 모습을 나투었다.

주민들 살생금기 지켜

보개산의 심원사는 오늘에 이르러 옛 절터와 함께 두개의 심원사로 존재해 있다. 3년전 군부대 불자장병을 위해 심원사지 밑에 군법당 심원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또하나의 심원사가 있다. 강원도 철원군 관인면에 자리한 지장도량 심원사(주지 영도)가 그것이다.

관인면의 심원사는 6.25당시 잃어버렸던 지장보살상을 되찾아 모신 기도도량이다. 이 지장보살상은 높이가 90cm, 무릎폭이 70cm가량의 작은 석불이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내려감은 듯한 눈, 잔잔한 미소, 왼쪽 어깨에는 천년전 이순석이 쏜 화살에 맞아 손상된 흔적이 남아있다. 보개산 석대암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남아서일까. 강원도 심원사 지장보살은 도금을 하여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칠이 벗겨지고 만다고 한다.

심원사 주지 영도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은 5년전부터 잃어버렸던 보개산 심원사터 찾기운동을 펼쳐왔다. 옛 토지문서를 찾아내고 자료를 모아 최근에 2백50만평의 정재를 찾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심원사 중창불사를 발원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늘에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잿빛 구름이 가득했다. 산속이어서 일찍 지는 땅거미를 따라 하산을 시작했다. 얼어붙은 보개산을 내려오면서도 안내병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산세가 수려한 보개산 계곡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산짐승, 물고기들이 많다. 그런데 이지역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살생이 금지되어 있다. 불문율처럼 내려온 이 불살생은 부대장들까지 앞장서서 지키고 있다. 살생이 있으면 부대내에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며 중생구제의 현장에 상주해 계시는 지장보살. 이렇게 지장보살의 원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금년은 을해년 돼지해다. 보개산 심원사를 찾은 일행은 지장보살 화현이었던 금돼지의 재출현을 기대하며 하산길을 재촉했다.

〈철원 보개산=이준엽 기자〉

◇심원사지 입구에 자리한 부도군.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 야간, 전문과정 •교계 최고의 강사진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간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5일 수업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종교관	원전강독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람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776-7156, 773-9171, 754-1613 FAX: 756-7258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새해 여천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삼보사
주지 대평
신도회장 신재철
총무 전인순
인천시 북구 임학동 31-3
☎ (032) 542-5131

삼성암
대중일동
서울시 도봉구 수유1동 488번지
☎ 988-1996, 9300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회원일동
서울시 성북구 정릉 2동 131-80
☎ 742-0172

전북불교대학
학장 강건기
부학장 한광수
기획실장 백준기 교무처장 노정희
학생처장 이현석 교화처장 백정구
사무처장 정민권 간사 유혜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1-1번지
☎ (0652) 86-3977, 86-3978
FAX (0652)86-3977

사천왕사
주지 현능
신도일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37
일신프라자 B/D 401호
☎ 939-3900

삼보사
주지 윤지원
신도회장 임석순
거사림회장 홍성걸
연화회장 차정순
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
☎ 352-6406